

[리빙]

집안에 자연이 숨신다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건축가 김영옥씨의 '숨쉬는 집' 만들기

▲바람길을 만들어주자

실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매일 2차례 이상 환기를 시키며 이때 창문 문, 싱크대 문, 신발장 문 등 집 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창을 함께 열어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환기는 오전 10시 이후, 오후 9시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상시에도 창문을 5~20cm 정도 열어두는 것이 좋다.

▲햇빛, 식물 등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인다

햇빛이 좋은 날은 창을 활짝 열어두자. 태양빛은 채광효과뿐 아니라 살균효과까지 있다. 식물도 실내 공기 정화에 좋다. 식물의 잎은 유독물질을 빨아들이고 실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습도 조절도 해준다. 또 식물은 자연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다

실내 오염의 주원인은 각종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집을 고치거나 새집을 지을 때는 친환경 자재인지 꼭 체크해야 한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모든 마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했을 때 평당 3만~3만5천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추가된다.

▲패브릭은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면 소재가 좋다

침구, 커튼, 쿠션 등의 패브릭은 모두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며 자주 빨아주는 것이 좋다. 55℃ 이상의 물에서 세탁해 진드기와 먼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멀티탭을 활용하여 전자파를 차단한다

전자제품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전자파를 방출한다. TV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화면의 크기가 클수록 전자파가 많이 방출되므로 주의한다.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여 평소 전원을 꺼두면 전자파의 영향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

한 달여 전 광주시 북구 양산동 자이아파트에 입주한 박진선(여·39)씨 가족. 새 아파트인 데다 발코니 확장 공사까지 했지만 새집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보통 새집에 입주하면 코를 찌르는 화학물질 냄새가 3~4개월 가량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희한할 정도로 냄새가 없다.

비결은 바로 친환경 인테리어다. 박씨부부가 초·중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큰 맘먹고 친환경 소재를 골라 인테리어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소재를 이용했는지, 공간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등을 한국공간디자인협회 최선희 회장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천연소재 장판·마감재로 새집증후군·아토피 걱정 끝

◇현관과 거실

박씨의 집 현관문을 열면 정면엔 작은 폭포를 연상케 하는 벽천(壁泉)이 설치돼 있다. 시원한 느낌의 벽천은 가습과 산소동화 작용을 한다. 현관과 이어지는 전실의 벽은 흙 소재 타일을 붙여 땅이 땀 신발의 제습과 탈취 효과를 보였다. 화학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불쾌한 냄새를 없앴을 뿐 아니라 흙의 자연친화적 성질을 이용한 것.

친환경과 함께 최근 인테리어의 주요 트렌드는 심플함으로 대표되는 미니멀리즘. 박씨는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TV를 거실에서 치우고 그 공간을 대리석 벽으로 꾸몄다. TV 뿐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시설도 없이 무릎 높이의 가구 위에 꽃을 장식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공간이지만 아무 것도 놓지 않은 것처럼 훌륭한 인테리어가 됐다.

◇발코니와 바닥

지나해 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주부



기존의 접착제 등에 포함된 포름 알데히드는 아토피 질환의 주범으로 꼽힌다. 어린이 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주부들이 많아졌다. /위직림기자 jrwj@



①폴딩도어:방음·난방 등 에너지 절약



②벽천:가습·산소동화 작용



■친환경 인테리어로 꾸민 아파트



③흙 타일:제습·탈취 효과



④수용성 벽지:접착제 등 유해 화학물질 차단

들의 발코니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거실과 발코니 공간을 트는 것으로 인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거실 공간이 넓어지면서 온·냉방 비용이 늘어나고, 발코니 쪽 바닥재가 바깥 공간에 노출돼 있어 변형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박씨가 선택한 것이 폴딩 도어(folding door·접이식 문). 필요에 따라 유리로 된 문

을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방음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발코니의 바닥을 타일 소재로 차별화시켜 내구성을 높였다. 흙시 발코니 창을 열어두고 외출해 비가 들어오거나 직사광선을 자주 쬐어도 변형될 위험이 없다. 주방과 거실을 구분 짓는 미닫이 문을 설치한 것도 거실의 온·냉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

우리나라 주거 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온돌 난방이다. 난방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바닥재를 달리 해야 한다. 난방이 되는 부분은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천연 원목 마루 등 비화학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박씨의 경우 아이들 방에는 천연소재로 된 장판을 사용했다. 코르크를 압축시키는 방식으로 만든 바닥재로, 화학수지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토피 걱정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벽지와 마감재

벽지와 마감재는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테리어를 염두에 뒀다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친환경 벽지로는 유성인크 대신 수성인크로 무늬를 인쇄한 제품이 있다. 기존 벽지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약 97%가 유성인크에서 발생한다. 안료를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수성인크는 인체에 해가 없는 물을 사용한다.

또는 원목이나 흙 소재 등을 이용한 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정화화된 벽지보다 예술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벽 소재로 많이 쓰이는 규조토는 일반 페인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습도 유지와 각종 페인트의 벗겨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닥이나 벽의 마감에 할 때 쓰는 접착제는 아교나 발효콩물 등 천연 무기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수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대지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현대공인중개사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

급히 구합니다